

재중 동포 3~4세대의 문화어휘 수용 양상의 특이성

- 中韓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을 위한 기초 연구 관점에서 -

李英月*

目 录

1. 서론
2. 연구대상의 선정 의미와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
3. 문화어휘 수용 양상 사례 분석
4. 중한 이중언어 교육 지속을 위한 제언
5. 결론

1. 서론

세계화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언어보다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지식정보를 많이 갖게 되고, 그만큼 더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단일언어인보다 이중언어인(bilingual¹⁾)은 지능면(Bilingualism and IQ)에서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고에 있어서 더 높은 유연성과 인지적 탄성을 가졌으며, 언어 자극 내용에서도 더 민감성을 갖고 있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있어서 더 적절히 응답하는 역할이 유능하다고 한다.(Peal &

* 慶熙大學校 外國語大學 中國語學科 助教授

1) 'bilingual'은 두 가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중언어인이라고 해도 그 언어구사능력 정도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한 경우부터 제한적인 능력이나 사용까지 차이가 있다. 학자에 따라서 전자를 최상론자(maximalist), 후자를 최소론자(minimalist)라고 한다.(박영순, 2002, 3쪽)

Lambert, 1962, Ven-zeeb, 1977). 또한 균형 있는 이중언어인은 불균형적인 이중언어인보다 언어 다양성에서 유창성과 유연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언어 창조성까지도 우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ummins & Gulutsan, 1977)고 한다.²⁾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개개인의 자신감의 증대에서부터 경제적 이익까지, 상호 이해의 증대에서부터 민족의 생존에 이르기까지, 넓어진 교육 기회에서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수성에 대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재중 동포(조선족)³⁾들에게 실현되는 민족 어문 교육은 사실상 민족어인 조선어⁴⁾와 현지어인 중국어(漢語)를 모국어 수준으로 균형 있게 가르치는 심화된 성격의 한·중 이중언어 교육이다. 신중국의 탄생 이래 60여 년 동안 중국의 헌법 및 지역자치법의 보호 아래 재중 동포들의 이중언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현지 교사 체제와 자체 편찬한 전용 교과서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내 여타 소수민족들의 모범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정부의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조선족 생활에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을 하였다. 순기능에서는 조선족 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역기능에서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이중언어 교육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2) Peal & Lambert, 1962과 Ven-zeeb, 1977, Cummins & Gulutsan, 1977은 박영순(1995), 3쪽, 6쪽, 13쪽 재인용. 또한 박영순(1995, 8쪽-9쪽)은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연구자들은 방법론적으로 한계점이나 결함이 있지만, 그 판단은 긍정적인 면을 선호하면서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3) “在外同胞法(1997)”에서는 재외동포의 개념을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2,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되는 재중 조선족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혈통을 이어받은 재외동포에 속하는 사람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고등교육기관(대학교를 지칭함)의 ‘한국어학과’는 공식적으로 ‘조선어’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중국 내의 공식명칭은 여전히 ‘조선어’인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한국어를 조선어라고도 칭한다.

내 대도시로의 취업 및 이주로 말미암은 조선족 학생의 절대적인 자원의 부족은 현존하는 조선족 학교의 통폐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⁵⁾ 중국 내 우수 대학 진학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한 漢族 학교 선호 현상은 민족 학교 학생 자원을 점점 더 고갈되게 하고 있다⁶⁾. 영어와 중국어의 강세로 인한 민족어문 교육 시수의 감세는 조선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韓·中 이중언어 교육을 中·韓 이중언어 교육으로 변화되었으며⁷⁾ 조선족 교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처우가 낮은 원인은 교사의 일탈 현상, 특히 젊고 유능한 교사들의 감소와 유실 현상을 초래하였다.⁸⁾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의 민족어문 교육에 관한 연구는 조선족들이 밀집해 있는 연변조선족자치구 지역이나 대도시와 대학의 한국어 교육⁹⁾에 집중되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이중언어 및 민족어문에 대한 연구는 개론적인 조사연구들을 중심으로 교육 기관의 종류, 분포 현황, 학생과 교사 수량, 수업 시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김경근 외, 2005, 5쪽 등). 이러한 논의들은 보다 나은 현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

- 5) 조선족이 집중하여 살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초등학교 상황을 보면 1989년의 188개에서 1995년에는 77개로, 2022년에는 43개로 급감하였고, 중학교의 상황은 초등학교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1989년의 19개에서 1995년의 6개로, 2002년에는 2개밖에 남지 않았다.(김병운, 2007, 410-412쪽)
- 6) 흑룡강성 목단강시를 일례로, 1,200명의 조선족 학생들 중에서 54%에 달하는 640여 명이 한족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김병운, 2007, 412쪽)
- 7)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의무교육 기간 중 1995년에는 조선어강의 총 시간이 1575시간 배정하였던 것이 2002년에는 1524시간으로 감소되었고, 한어 강의 시간은 1199시간에서 298시간 증가한 1497시간으로 배정되었다. 전국한국어문교재심사위원회와 동북삼성 한국어문 교재 편역 출판협조소조, 2005년, “조선족학교 의무교육과정배치방안” 참조.
- 8) 흑룡강 상지 지역을 일례로, 1985년의 215명에서 1997년의 175명, 2000년의 140명, 2004년의 7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김병운, 2007, 414쪽).
- 9) 중국 대학에서 연구된 조선어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은 중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 309편에 달하고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논문도 100여 편에 달한다. 이 중에서 발음교육에 관한 논문이 19편, 어휘교육에 관한 논문이 36편, 문법교육에 관한 논문이 45편(김병운, 2009, 2S쪽)으로서 이것은 대부분 연구자 중심의 논문이다.

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 실태 조사연구라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이러한 기초연구들은 한국어 교육과 사용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을 뿐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민족의 자산인 한국어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국내 교육과 학제 간의 연계 측면에서의 진일보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조향록, 2004; 박갑수, 2005; 김호정, 2007).

교육 행위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언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지의 언어 교육 상황과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차세대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연구는 향후 교육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중국의 '小都市'와 재중 동포 '중학생'들의 朝中韓 언어 속에 나타난 한국어 문화 어휘 수용 양상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재중 동포 3~4세대들의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의 선정 의미와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

1) 연구대상의 선정 의미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동포의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현지조사 연구는 주로 조선족 밀집 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구나 3급¹⁰⁾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10) 중국의 市는 모두 6개 등급으로 나눈다. 제1등급은 省급 市로서 직할시, 특별행정구역, 인구 200만 이상 되는 도시로서 북경, 상해, 천진 등 18개 도시이고, 제2등급은 副 省급 市로서 도회지와 경제특구, 명승유적들로서 소주, 항주, 장춘 등 25개 도시이

이루어졌으며, 4급 이하의 소도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국 대륙의 최북단인 黑龍江省의 6급 소도시에 위치한 “海林市 朝鮮族中學校(이하 ‘해림중’으로 칭함)”¹¹⁾의 학생들이다.

본고는 흑룡강성 해림시 조선족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 중에서 중학생(2학년)들에 대한 자료만을 선별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102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37명, 여학생은 57명, 성별 미기재 학생이 8명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보통 15세 정도이다. 언어심리학자들이나 이중언어 교육자들에 의하면 15세 정도의 나이는 진정한 이중언어인이 될 수 있는 연령의 분기점이며, 15세 이후에는 다른 언어권에 이민한 사람은 제2언어를 제1언어만큼 모국어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한다(박영순, 1989, 44쪽).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바로 15세 정도의 중학생이며 이들은 전형적인 이중언어 화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래의 실태조사 자료(도표 1)¹²⁾에 근거한 조사대상의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해림중의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한·중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혼합하여(53%와 58.7%) 균등하게 사용하고 학습하고 있다. 중국에는 조

며, 제3등급은 연해 지역의 개방 도시 및 고소득 도시로서 계림 등 24개 도시이다. 제4등급은 인구 100만 이상의 경제도시로서 길림, 낙양 등 18개 도시이며, 제5등급 市는 인구 50만 이상의 경제, 교통, 관광이 발달된 도시로서 단둥, 황산 등 23개 도시이며, 이상 108개 市를 “108漢”이라 불림으로써 나머지 도시는 모두 6등급 말단 도시로 묶는다. 해림시는 6등급에 속하는 최하위 도시이다.

11) 1948년에 개교된 ‘해림중(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의 학교)’은 65년의 민족어문 교육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10개 학급의 중학교 과정생과 11개 학급의 고등학교 과정생 총 1,19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해림중은 조선족 학교의 통폐합과 학생자원의 절대적 감소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민족어문 교육의 전당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12)

빈도	내용 유형	도표1. 해림중 학생들의 한중 이중 언어 사용 상황			
		朝鮮語	韓國語 ¹⁾	中國語	朝漢混用 ¹⁾
가정		41%	2%	4%	53%
학교		15.6%	3.7%	22%	58.7
평균 합계		28.3	2.85	13	55.85

선족 중학교가 약 211개¹³⁾가 있는데, 대부분은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집중해서 사는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민족학교에 재학하는 재중 동포 3, 4세대의 학생들은 해립중의 학생들처럼 전형적인 이중언어 사용자들이다.

둘째, 해립중 이중언어 화자의 한중 언어 사용 실태를 심층 분석해 볼 때 ①. 가정에서의 조선어 사용은(41%) 중국어(4%)보다 10배 이상 되지만 학교에서는 조선어 사용량이 41%에서 15.6%로 하향된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가정에서는 조선어가 제1언어임을 나타낸다. ②. 학교(22%)에서의 중국어 사용자는 가정(4%)에서보다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는 중국어가 제1언어이고 조선어가 제2언어로 뒤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조선어 수업 시수가 민족어보다 현지어(중국어)와 제2언어(영어)에 비해 갈수록 줄어드는 결과이다(도표2¹⁴⁾ 참조). 그러나 전체 교과 과정에서의 한중 어문 수업 시수의 배치는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중언어 교육은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은 《중앙민족대학 학부생 조선어 실태조사 보고서》 중에서 “한국

13) 2000년도의 조선족 학교의 현황은 소학교 984개, 중학교 211개...가 있다고 한다. 박갑수, 2007, 381쪽 참조.

14) 도표2 조선어 수업 주당 시간 배정 도표
「이 도표는 김병운(2007)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초등학교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991	10시간	8시간	8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1993	8시간	6시간	6시간	5시간	5시간	5시간	
중학교	1988	1학년 / 4시간		2학년 / 4시간		3학년 / 4시간	
	1993	1학년 / 3시간		2학년 / 3시간		3학년 / 3시간	
고등학교	필수	1학년/ 2~3시간		2학년/ 2~3시간			
	선택					2~3시간	

어 어휘가 조선어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⁵⁾

보고서 작성자¹⁶⁾들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출신의 재중 동포 대학생 들로서 이들 역시 한중 이중언어 사용자이다. 조사자들은 2011년 9월 근 한 달 동안 ‘흑룡강성해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와 ‘해림시조선족중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한국어 작문 수집, 수업 참관 기록, 일상 생활언어에 대한 대화 식 질의, 교원 취재 등 여러 과정을 통하여 초·중 학생의 언어생활에 미친 한국어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현지 동포 선배들의 시야와 사고 안에서 관찰된 언어 사용 실태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중 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어휘 사용 현황”에 대한 중학생들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조사연구는 한국어 어휘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고는 조선어 속에 한국어 어휘의 “수용 양상”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수용자의 가정·사회·언어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휘를 둘러싼 공간적 수용 양상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수용 환경의 조성정책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궁극적 목표는 재중 동포 중학생의 한국어 어휘의 수용 양상 분석을 통하여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고의 중심은 조사된 ‘언어의 결과물’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선족 중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어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수용된 문화어휘를 (1), 朝·中·韓 동의어 대응관계, (2), 中·韓 외래어와 축약어의 신조어대조, (3), 즐겨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 등 세 가지 양상으로 재구성하여 나타내 보았다.

15) 이 보고서는 북경 중앙민족대학 조문학부의 재학생들이 동북 3성 조선족 거주지를 상대로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과제보고로서, 보고서의 중국어 원문은 “中韓建交以來韓國語對中國朝鮮語詞匯的影響——以黑龍江省海林市朝鮮族中小學生爲調查對象”이다.

16) 필자는 2012년 이메일 등의 교신을 통하여 보고서 작성자를 상대로 진일보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고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보고서 작성자 김은경, 김찬동, 최영려, 김향화에게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고마움을 표한다.

3. 문화어휘 수용 양상 사례 분석

1) 문화어휘의 공간적 수용

(1) 사회 및 가정적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 정부의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조선족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해림시도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여타 집거지역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한국음식점들과 한국의류, 화장품, 생필품 가게들이 점점 거리를 메우고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가게 간판들 외에 한국어로만 된 간판들도 눈에 띄는 정도이다.

조선족의 가정생활에서 한국 공산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조사대상 가정의 생활용품은 한국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74%)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화장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문구, 세면용품, 침구류 등 세부지표는 각각 52%, 75%, 47%, 44%, 39%, 37%로서, 한국과의 교류가 친밀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현재 해림시는 흑룡강성에서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은 현급(縣級) 시로서 44만 인구 중에서 조선족은 37,000명인 8%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한국과의 친분관계(한국거주 경험 또는 현재 체류 중)가 있는 조선족은 11%나 된다.¹⁷⁾ 본고의 조사대상 102명 중에서 62명의 학부모가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만이 한국 체류를 경험한 한 학생은 각각 13명, 총 26명이며, 부모의 한국 체류 무경험자는 겨우 14명밖에 안 된다.

학생들은 가정과 삶 속에서 부모들이 경험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전수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 중인 부모님과 서신교류, 전화통화 및 한국방문의 기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득한 한국적 요소, 특히 언어적 요소(한국어)를 개인적인

17) http://politics.csscipaper.com/china/ethnology/20119_2.html

교제나 집단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학부모의 한국 체류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언어·문화적 배경: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의 서적과 TV, 인터넷을 통하여 한류 열풍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도표3¹⁸⁾ 참조)

조사대상의 절반(46%)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서적을 읽고 있었는데, 소설 종류가 63%로 제일 많았고, 잡지와 인물전기, 만화류가 각각 20%와 13%, 46%를 차지하였다. 한국서적들의 구입 통로는 대부분 한국 체류 중인 부모님 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인기 서적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환해 본다든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편벽한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림시에서 대부분의 조선족(해림중 학생들 중에서는 52%)들은 사비¹⁹⁾로 한국 위성 TV를 시청하고 있다.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한국드라마로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오락, 음악 프로그램이 각각 58%, 45%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 중학생의 66%가 한국어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음악, 영화, 오락프로그램, 채팅, 자료수집, 뉴스 등 세부 항목은 각각 78%, 45%, 36%, 22%, 16%, 4%순인데, 이것은 한국 중학생들의 인터넷문화와 매우 흡사하다.

18)

도표3 한국의 언어·문화 접촉 상황		
접촉 정도	전혀	자주
한국 서적 구독	54%	46%
인터넷 접속	34%	66%
위성 TV 시청	48%	52%

19) 한국TV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위성접수시설을 이용하여(유료) 청취하고 있다. 이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본고의 논의 사항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요컨대, 한국의 서적과 공산품, 위성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지식체계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세대 그네들만의 생활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2) 문화어휘 수용 양상 사례 분석

(1) 동의어 대응을 통한 수용 양상 분석

조선어 중에는 한국어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어휘들이 적지 않다. 조사자들은 조선어, 중국어, 한국어에서 동의적 관계를 갖는 17개 어휘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선택하게 하였다. 제시된 어휘들은 『꽃동산』, 『아동세계』, 『소년아동』, 『소학생작문』, 『중학생』 등 중학생이 애독하는 잡지들에서 뽑은 어휘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어휘는 언어권 별로 다루거나 학습자 간의 문화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관점에서 재분류하지만, 본고는 박영순(1989, 45~47쪽)의 문화교육의 분류항목(“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문화재, 학문, 사업기술”)을 바탕으로 생활문화, 학교문화, 방송예술 및 과학기술로 재구성해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분류 항목으로 조사한 17개의 어휘들을 도표4로 재구성해 보이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4 朝·中·韓 동의어²⁰⁾ 대응관계

번호	유형	한국어 ²¹⁾	%	조선어	%	중국어	%
1	생활문화	팬티	81.8	뻬쯔	10.9	內褲	5.9
2		찜질방	44.7	사우나	21.4	桑拿	24.3
3		카메라	37.6	사진기	54.5	相機	7.9
4		다이어트	35.3	살빼기	1	減肥	62.7
5		쇼핑	34.3	장보기	7.8	逛街	54.9
6		키	26.7	열쇠	66.3	銅匙	6.9
7		케익	24.8	단절기	23.8	蛋糕	48.5

8		컵	21.7	고뿌	72.5	杯子	5.9
9		샤워	19.8	목욕	77.2	淋浴	3
10		액세서리	17.8	장신구	6.9	首飾	60.4
11		커피숍	5	다방	56.4	冷飲廳	36.6
12	방송 예술	스타	48.5	배우	6.9	明星	39.6
13		아나운서	42.4	사회자	11.5	主持人	46.2
14	학교문화	수업시간	54.9	상과시간	33.3	課時間	10.8
15		퀴즈	7.9	수수께끼	72.3	謎語	18.8
16	과학 기술	게임	53.9	유희	19.6	遊戲	26.5
17		메시지	46	문자	8.8	短信	43.1
평균		39.65%		30.82%		29.53% ²²⁾	

첫째, 논의된 어휘 항목 중에서 “팬티(81.8%), 짬질방(44.7%)” 등 일상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어휘가 64.7%(11개)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업시간(54.3%)”, “게임(53.9%)” 등 학교문화 및 과학기술문화를 반영하는 학생용 어휘 사용률(31.4%)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족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문화 어휘들을 몸과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어휘 속에 외래어 어휘가 많은 것에 반해 조선어 어휘는 대부분 고유어나 한자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中韓 세 종류에서 ‘한국어’ 어휘 사용률이 39.65%로 가장 높다. 朝中韓 동의어 중에서 ‘전통적인 조선어’ 어휘보다 이러한 ‘새로운 한국어’ 어휘를 즐겨 사용

- 20) 아래에 제시한 동의어, 예를 들면 “짬질방-사우나, 키-열쇠, 샤워-목욕, 스타-배우, 아나운서-사회자, 퀴즈-수수께끼, 메시지-문자” 등 단어들은 한국어 내에서는 사용역과 의미가 일부 상이함으로 유의어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 하나를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본고에서만은 동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들을 [한국어-조선어]의 동의 관계 어휘라고 설정하였다.
- 21) 제시된 朝中韓 동의어 중에서 ‘한국어’는 조사자들이 지정한 것으로 본고는 조사자들의 선정 근거를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였다.
- 22) 한국어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률을 보인 중국어 어휘들 이를테면: “다이어트(減肥, 62.7%)”, “액세서리(首飾, 60.4%)”, “쇼핑(逛街, 54.9%)” 등은 중학생들의 생활 및 행동반경 밖의 어휘들이며, 현대 중국어의 유행어들이어서 중국의 언어문화 영향의 우세로 해석된다.

한다는 것(예: ‘사진기’보다 ‘카메라’를, ‘살까기’보다 ‘다이어트’를 선호)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며, 이것은 또한 민족어문교육의 정규과정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한국적 문화어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 문화어휘에 대한 개념²³⁾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데, 전미순, 이병운(2011년, 194쪽)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어휘의 개념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표4의 문화어휘들은 한국을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전통적인 색채를 반영하는 직접어휘가 아니라 2차적 상징 의미를 지닌 간접문화 어휘들이다. 재중 동포 자녀들은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김치, 태극기, 무궁화, 아리랑, 한복, 고구려, 한글” 등과 같은 직접어휘들을 그들의 일상과 사교의 영역에서 이미 깊이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재미, 재소, 재유럽 등 여타 지역의 동포 2~3세대와 구별되는 점이다.

(2) 외래어와 축약어 등 신조어의 수용 양상

어휘는 언어의 여러 요소 중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서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맞춰 제일 먼저 반응한다. 그 중에서도 신조어는 새로운 사회와 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당시 사회 현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조어에는 기존 어휘의 의미 확장과 언어의 출입 현상, 외래어까지 포함한다. 때문에 필자는 조사자들이 선정한 26개 어휘의 대부분이 외래어이고 그 외의 어휘들은 새로운 사물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임에 착안하여 조사 어휘들을 신조어의 범주 안에서 외래어와 축약어로 하위

23) 문화어휘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문화어휘에 대한 개념은 박영준:2000, 유문희:2004, 정예희:2006, 김영진:2008, 심혜령:2009 등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한 전미순, 이병운(2011, 193~195쪽)의 개념을 따른다.

분류하였다.²⁴⁾ 또한 위의 (1)과 같이 일관된 문화어휘의 범주에서 학교문화, 생활용어, 과학기술, 방송예술 등 동일 항목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도표5).

표5 韓·中 신조어인 외래어·축약어 사용빈도 대조

외래어				번호	축약어				
유형	어휘	次數	%		유형	어휘	次數	%	
학교 문화	커플/情侶	72	70.6	1	학교 문화	공주병/公主病*	61	59.8	
	노크/敲門	57	55.9	2		남친/男朋友	45	44.1	
	데이트/約會	45	44.1	3		얼짱	40	39.2	
	아이디어/想法	42	41.2	4		왕따/孤立	37	36.3	
	브라보/好樣的	27	26.5	5		쿨하다/酷	32	31.4	
생활 용어	샴푸/洗發液	60	58.8	6	생활 용어	쏘하다	30	29.4	
	치킨/鷄翅	59	57.8	7		게시판/公告欄*	24	23.5	
	요구르트/酸奶	33	32.3	8		몰카/偷拍	18	17.6	
과학기술	핸드폰/手机	98	96.1	9	과학 기술	디카/數碼相機	11	10.8	
	인터넷/網絡	90	88.2	10		컴맹/網盲	7	6.89	
	이메일/郵箱	53	52	11			생활 용어	배달/外賣*	59
	메신저/MSN	22	21.6	12		라볶이/拉面炒米條		16	15.7
방송예술	드라마/電視劇	78	76.5	13	생활 용어				
	데뷔/出道	13	12.7	14					

첫째, 축약어는 언어학적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이 가장 잘 반영된 신조어로서 최근 실생활에서 낱말을 만드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등장한다. “몰카, 남친, 얼짱, 디카, 라볶이” 등 축약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이런 축약어들은 최근 10여년 사이 중학생들의 언어문화 속에

24) 필자의 이러한 분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조어에는 기존 어휘의 의미 확장 과 언어의 줄임 현상, 외래어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로 표시된 ‘공주병, 게시판, 배달’ 등 어휘들은 예외로 볼 수 있지만, 조사자들이 선정한 어휘를 포함시키려는 본 고만의 배치임을 밝힌다.

새로 유입된 한국적인 신조어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최신의 용어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화자들에게 즉각 수용되는 양상은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지닌 이러한 어휘 수용 현상은 한중 중학생들 기간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며 문화의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재중 동포들이 한국어를 접하면서 가장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은 “한국어 속의 외래어 남용”²⁵⁾이다. 현지 조사자들은 한국어 어휘 속에 있는 이러한 ‘이질적’ 요소의 외래어들이 한국적 언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란 곧 외래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조사내용과 방법도 26개의 외래어(한국어) 제시어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즐겨 사용하는 한국어를 선택하게 하였다. “핸드폰(96.1%)”, “인터넷(88.2%)”, “드라마(76.5%)”, “삼푸(58.8%)”, “치킨(57.8%)”, “노크(55.9%)”, “메일(52%)” 등 일상생활 속의 외래어는 아주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5 안의 14개 외래어는 물론, 축약어의 절반 이상이 순수 외래어이거나 외래어 합성어들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축약어로 분류된 12개 어휘 중 5개 어휘(쿨하다, 쏘하다. 몰카, 디카, 컴맹 등)는 외래어와 한국어 형태소가 합성되어 있다.

셋째, 외래어나 외래어 요소가 우리 국어 어휘내부로 끼어들어 기존의 고유어, 한자어와 결합하여 파생어나 합성어 방식으로 어휘 생성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예를 들면 “배꼽티, 통다리, 깜짝쇼, 몰래카메라, 슬림하다, 디테일하다, 쏘하다”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래어 요소가 국어 문법 체계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한다. 조사자들과 피조사대상자들은 이러한 신조어(외래어와 축약어)들에 대하여 어근, 접사, 형태소 등 국어 형태소로 인식되는 문법적 분석과정이나 통사 의미론 차

25) 태평무(2001:40, 64)에서는 조선어어휘규범화작업에서 봉착하는 중요한 문제로 한국어에서의 외래어 남용을 꼽았다. 이정희(2007:204) 역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생 화자의 경우 외래어에 대한 인식정도가 기타 언어권보다 낮으며 외래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원의 심층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말뭉치 어휘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3) 즐겨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

동포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이 자주 쓰는 한국어 어휘를 3개씩 적어내는 주관식 조사도 있었다. 3개 이상 선택된 어휘를 표6와 같이 ‘생활 용어’, ‘학교 문화’, ‘방송 예술’ 등 문화어휘의 동일한 범주 안에서 분류하였다.

표6 즐겨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²⁶⁾

생활 용어	衣	스타일, 쇼, 티셔츠(3개)
	食	커피, 피자, 돈까스, 계란, 치킨, 빵, 주스, 오렌즈, 햄버겔(9개)
	住	세제, 화장실, 가스(3개)
학교 문화	문구·전자제품	펜, 애니콜, 캠캠, 피아노, 노트북(5개)
	학생일반	스트레스, 아이디어, 싸이월드 ²⁷⁾ , 앨범(4개)
	입말	죄송합니다, 아~씨발, 꺼져(3개)
방송 예술		데뷔, 프로그램, 멤버, 연예인, 스포츠, 콘서트, 팬, 피디, 옛지 있게(9개)

표6의 분류와 같이 衣食住와 관련된 생활용어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구, 전자제품 등 학교문화와 관련된 어휘가 12개로 많았으며,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시청을 통하여 접하게 된 미디어 방송 용어가 6개이다. 선택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부여했을 때 얻어진 이러한 결과는 위의 (1), (2)사례 양상과 똑 같은 ‘생활 용어’, ‘학교 문화’, ‘방송 예술’ 등의 문화어휘 범주로 나타

26) 원 보고서에서 분류한 어휘종류는 전자제품, 의류, 생필품, 생활용어, 오락프로그램, 신조어, 음식, 구어와 관용어로 분류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위의 일관된 문화어휘의 분류 항목을 따랐다.

27) 한국어 맞춤법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표기한 것은 규범보다는 들리는 대로 발음하고 있는 생활언어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연레인, 오렌즈, 주스, 펙권” 등에서도 나타난다.

났다. 뿐만 아니라 입말 어휘의 90%(33개) 이상의 어휘들은 (1), (2)의 사례 양상과 똑 같이 외래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실제 구어 발화에서 “아~ 씨발, 꺼져, 왕따”와 같은 비속어 사용 양상이다. 비속어의 사용은 동료 집단이나 청소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욕구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본고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비속어들의 수용 통로가 대부분이 미디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들에서 순화된 아름다운 우리말을 활성화시키고 수월한 이중언어 교육환경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구사할 수 있는 유익한 환경 조성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구촌 곳곳에 있는 재외 동포를 포함한 수용자 중심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수용 양상의 조사 자료에 제시된 80여개의 어휘들은 재중 동포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상용하는 어휘들로 이것을 ‘문화어휘’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생활문화와 학교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들은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휘들은 대부분 2차적 상징 의미를 지닌 간접문화 어휘들로 어휘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한국어(모국어)와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고유어(한자어 포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간접 어휘들 간의 동질성을 통하여 우리는 재중 3~4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언어 및 문화를 이질감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어휘 속의 외래어는 국어순화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은 이러한 비주류의 외래어 어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으니 언어발달의 생리적 특성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로 간주된다. 이질적인 어휘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언어행위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어와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선족 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외래어의 수용 및 사용 빈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오늘날 재중 동포 3~4세대의 중학생들이 수용한 한국어 어휘 양상들은 그것이 생활 용어든 학교 문화 용어든, 방송 예술 용어든 과학기술 용어든, 혹은 직접문화어휘든 간접문화어휘든, 또는 외래어든 축약어 등 신조어든 지 그 옹고 그름의 논란을 떠나 이미 사회적 ‘문제’가 아닌 언어적 ‘현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4. 중한 이중언어 교육 지속을 위한 제언

최근 학계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사회와 구성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모색하기 위한 담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문화가 국력인 21세기에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겠다”(2013. 3. 26)고 하였다.

문화 교육의 범위를 축소하여 ‘언어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적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화어휘’라 여겨진다. 문화어휘에 담겨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문화충격으로 인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하게 하며 한국어 학습에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일을 돕게 만들기도 한다. 문화어휘는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특수 어휘이기 때문에 일반 어휘와는 차별화된 교육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재중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바로 언어문화의 교육으로서 ‘어떤’ 문화어휘를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화어휘를 바라보는 ‘왜?’ 라는 넓은 안목으로 목표어의 문화 어휘를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하다.

재중 동포 조선족의 민족어를 중심으로 하는 중한 이중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중 동포 학자의 “공동체 유지의 진로를 민족어문 교육으로 풀어보려는 노력(황유복, 1996, 303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재중 동포 3~4세의 이중언어 교육 지속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단기적인 목표보다 긴 시야와 안목을 갖고 실제적인 대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형 학술대회나 대규모 행사보다 우수한 현지인으로서 안정적으로 현지에 정착하고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것 하나에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야 할 때다. 이를테면 해림중과 같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민족학교에 ‘한민족 도서관 짓기’, ‘사랑의 도서 나눠주기’나 ‘초중고 민족학교 동포(개인이나 소수 인원이 아닌 단체)의 고국 방문, 또는 중고등학교 00수업(예: 국어, 영어, 수학 등) 견학’, ‘고국의 중고등학교와 친구하기’, ‘재중 동포의 한국 대학 특별 입학 전형의 설치’, ‘현지 교사의 연수, 방문 기회의 확대’ 등 소통과 공유와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모국 사랑’, ‘한국어 사랑’을 몸소 배우고 실현하도록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비정규 교육기관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기획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재중 동포의 중한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현지 조사가 미흡했던 중국 최북단 편벽한 곳에 위치한 해림시 중학생들의 한국어 문화 어휘 수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중 조선족 동포의 민족어문 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해림중 중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한중 이중언어 사용과 한국어 서적, 위성TV, 인터넷, 한국 상품의 사용 상황을 통하여 한국의 언어 문화의 공간적 수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수용된 문화어휘를 “朝·中·韓의 동의어 대응관계”, “中·韓 외래어와 축약어의 신조어 대조”, “즐거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 등 세 가지 양상으로 재구성하여 재중 조선족 중학생들이 한국의 언어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고는 문화어휘의 가치를 피력하였으며 재중 동포 3~4세대들의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작지만 구체적인 문화지원 방안을 해림중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參考文獻

- 김경근 외 4인, 『재외한인 민족교육의 실태(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한 상 문화연구단 총서5)』, 서울: 집문당, 5쪽, 2005
- 김기창, 「재중 동포 대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언어 차이 현상」, 『새국어교육』 제8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431쪽~457쪽, 2009
- 김병운, 「중국조선족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395쪽~422쪽, 2007
- 김병운,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호정,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관점에서-」, 『한국어교육』18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73쪽~100쪽, 2007
- 박갑수,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370쪽, 381쪽, 2007
- 박근혜(대통령), 『취임연설』, 2013. 3. 26
- 박영순,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제5호, 이중언어학회, 45~47쪽, 1989
- 박영순, 이중언어 능력과 인지기능, 『이중언어학』 제12호, 이중언어학회, 1쪽~18쪽, 1995
- 박영순, 정보화 시대의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3쪽, 2002
- 이정은, 「재외동포의 이중언어사용 상황과 한국어 학습 양상의 특이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교육 현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1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93쪽~217쪽, 2005
- 이정희, 「한국어 외래어 교육 목록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제18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5쪽~220쪽, 2007
- 전국한국어문교재심사위원회와 동북삼성 한국어문 교재 편역 출판협조 소조,

- 『조선족학교 의무 교육과정 배치 방안』, 중국 장춘, 2005
- 전미순, 이병운, 「한국어 문화어휘에 관한 고찰 -문화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7집,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3~195쪽, 2011
- 정경연, 「건국이래 중국의 조한이중 언어현상에 대한 개관」, 『이중언어학』7호,
이중언어학회 167쪽~179쪽, 1990
- 조항목,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 교육』
제15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쪽~232쪽, 2004
- 태평무 주필, 『세계 속의 조선어(한국어) 어휘구성의 특징과 어휘사용실태에 관
한 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40, 64쪽, 2001
- 황유복, 「21세기를 지향하는 중국 조선족의 교육」, 『亞細亞文化研究』 제1호, 韓
國際園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 中國中央民族大學韓國文化研究所 301
쪽~316쪽, 1996
- http://politicsscscpapercom/china/ethnology/20119_2html

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bility Korean culture –related words for Korean Heritage
Speakers in China
– For the fundamental studies to continue Chinese–Korean bilingual education Policy –

Lee young-wol

This article is basic research about basic foundation to continue Chinese–Korean bilingual education policy for Korean residents in China.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a study on the acceptance phase of Korean cultural words of middle schoolers in northernmost part of China, Haerim City, where we didn't have much field survey before. For this study we first observed the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rate of countrymen of Korean–Chinese in China, and study on the acceptance on Korean language culture by checking Korean books, satellite TV, internet, and product. From these background, we tried to analyse how Chosun–Korean–Chinese in China is containing minimal unit of 'educ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which are new-coined word in Korean, loanword, etc, in their ethnic language. This was analysed in perspective in cultural words. Finally, we proposed cultural support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bilingual education of Korean Heritage Speakers in China through these case studies.

Key words : Korean Resident in China, Chinese–Korean bilingual, Korean culture vocabul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Hailin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Middle School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